

히가시카와 주주제도를 통해 히가시카와초의 일원이 되자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이유

히가시카와초는 홋카이도의 중앙에 위치한 인구 약 8,600 명의 지역이다. 동부는 산악지대로 대규모 삼림 지역을 형성하며, 일본 최대 자연공원인 ‘다이세쓰산 국립공원’의 일부를 이룬다.

1985 년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진 도시’를 선언한 히가시카와초는 ‘자연’과 ‘문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사진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 조성에 힘써왔다. 히가시카와초의 매력은 풍요로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형성된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에도 있다. 히가시카와초는 사진 문화를 통해 그 매력을 일본 국내외에 알리며 많은 사람과의 교류를 돈독히 해왔다.

고향 납세가 일본의 국가적 제도로 시작된 것은 2008 년 5 월이다. 고향 납세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증정하고, 그 외에도 2,000 엔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환급과 주민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기부를 받는 지역과 응원하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 히가시카와초에서는 고향 납세에 대해 ‘이대로는 히가시카와초만의 특징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히가시카와초가 ‘사진 도시 선언’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1985 년에 전 세계를 향해 ‘사진 도시 선언’을 한 히가시카와초는 당시부터 히가시카와초 국제 사

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자체가 주최하는 최초의 사진상인 ‘히가시카와상’을 창설하는 등 사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며 세계인에게 열린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아왔다. 기부를 받고 답례품으로 물품을 증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과의 유대감이 그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아 히가시카와초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활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유대를 맺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떠오른 것이 기업의 주주제도였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주주는 간접적으로 해당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나 우대품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히가시카와초도 ‘외부에서 응원해 주는 주주’가 존재해도 좋겠다는 발상에서 아이디어가 확대되었다.

응원해 준 사람은 주주우대(답례품)를 받을 뿐만 아니라, 히가시카와초의 도시 조성에 관여할 수 있는 ‘특별 주민’으로 인정되어 인정서가 증정된다. 또한 투자(기부)의 사용처가 되는 ‘프로젝트’도 제도 시작 초기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체계로 설정했다.

또한 ‘히가시카와초 주주입니다’라며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히가시카와를 모티프로 디자인한 카드형 ‘주주증’을 전달하기로 했다. 나아가 해당 주주증을 지참하고 히가시카와를 방문하면 특정 시설에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는 특전도 제공하고 있다.

답례품을 증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방문하여 도시와 유대를 맺도록 하는 것. 주주가 늘어나면 히가시카와의 연결망이 점차 확장되

어간다. 이러한 생각에서 ‘히가시카와 주주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사업 목적

본 제도의 목적은 이곳 주민이 아니더라도 히가시카와초를 응원해 주는 모든 분이 히가시카와초와 지속적으로 유대를 맺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역의 관계 인구를 늘려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사업 개요

‘히가시카와 주주제도’는 고향 납세가 제도화된 2008 년에 창설된 히가시카와초만의 자체 제도이다. 고향 납세의 ‘기부’를 ‘투자’, ‘기부자’를 ‘주주’라고 표현하며 히가시카와초를 응원해 주는 분들과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1. 제도의 체계

- 투자(기부): 히가시카와초에 1 만 엔 이상 (10 주 이상)을 투자하면 ‘주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는 일반 고향 납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 프로젝트 지원: 주주는 히가시카와초가 제안하는 프로젝트(예: 사진 문화 진흥, 지역자원 활용, 자연환경 보호 등)를 선택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 주주증 발급: 주주에게는 ‘주주증’이 발급되며, 특별 주민으로 인정된다. 또한 주주증에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인 ‘HUC(히가시카와 유니버설 카드)’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지역 내 쇼핑 시에 활용할 수 있다.

2. 주주의 이점

- 주주우대(답례품): 기부액에 따라 히가시카와초의 특산품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 특별 주민으로 인정: 히가시카와초를 응원해 주는 특별한 주민으로서 ‘주주증’과 ‘특별 주민증’을 증정한다. 주주증은 히가시카와 주주임을 나타내는 증표이

자, 그 외에도 공공시설을 주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 숙박 시설 우대: 히가시카와초 내 지정 숙박 시설에서 무료 숙박이나 할인 등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히가시카와초 방문의 계기로 이용할 수 있다.
- 주주우대 혜택 이용: 아사히다케 로프웨이 할인 등 지역 내외 시설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 주주총회 참가: 히가시카와초를 실제로 방문해 식목 활동 등을 통한 히가시카와초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오찬 모임과 지역 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히가시카와초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한 장점과 선진성

‘히가시카와 주주제도’는 기부자를 단순한 지원자가 아닌 ‘주주’로 받아들여 지역의 일원으로서 도시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것은 기존 고향 납세 제도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 구축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주에게는 지역과의 지속적인 유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특전과 우대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투자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 단순한 자금 제공자가 아닌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도시 조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사업 효과

‘히가시카와 주주제도’로 인해 지역 외부인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관계 인구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현시점(2024년 3월 31일 기준)에서 지역 인구의 약 20 배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존재하며, 이미 많은 주주가 히가시카와초와 유대를 맺고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주가 지역을 방문하면서 관광과 숙박 시설 이용이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4. 3. 31. 기준 누계 주주 수 182,335 명

과제 및 문제점과 대응

‘히가시카와 주주제도’ 도입에 수반하여 몇 가지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먼저 주주가 실제로 지역을 방문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주가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우므로, 온라인 이벤트의 내실화와 원격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전개 (기대 효과 및 사업 전망, 과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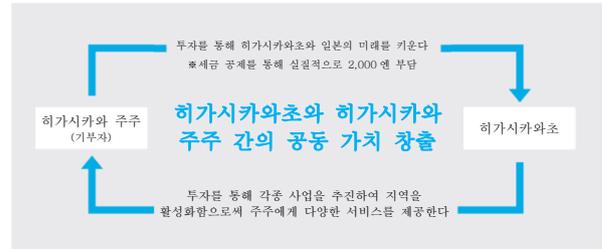
앞으로 히가시카와초는 ‘히가시카와 주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관계 인구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주주가 지역과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새로운 특전을 도입하고 주주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등 더욱 매력적인 주주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히가시카와 주주제도’는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시책이며, 앞으로도 지역 외부인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활동을 통해 히가시카와초는 지역과 사람들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주주증’



주주제도 이미지



히가시카와초 풍경

참고 URL

<https://higashikawa-town.jp/kabunushi>

담당 연락처

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 81-0166-82-2111

이메일: kabu@higashikawa.lg.jp